

## 돈 교육 (2): 돈을 아름답게 쓰도록 가르쳐라

- 한홍 목사 / 2001. 9. 26 -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 교육의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돈 교육은 땀 흘려 번 돈을 아름답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사치와 낭비를 피하고, 실용적이며 건실한 소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호화 브랜드를 필요 이상으로 공급받은 아이는 커서 좋은 것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점차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갈 때의 기쁨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필요 이상의 사치스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과잉으로 공급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법입니다.

“부자들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갑부들 자녀만 살찌게 된다.” “상속세가 사라지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귀족사회가 되면 안 된다.”

급진적인 평등주의자나 사회 하층계급의 불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거부들의 말입니다.

2001년 2월 14일, 뉴욕 타임스 1면 기사에는 미국의 갑부 120명이 상속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대대적인 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1조6천억달러 감세안을 내걸고 2009년까지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데서부터 일기 시작한 움직임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지펀드계의 큰 손 조지 소로스, 석유왕 록펠러가의 후손 데이비드 록펠러, 월 스트릿을 대표하는 투자가 워렌 버핏, 억만장자 아그네스 군드 등 하나같이 쟁쟁한 부자들입니다.

미국에선 연 수입 67만5천달러 이상부터 약 37%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고, 3백만달러가 넘으면 세율이 55%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부시 대통령이 이들 갑부들의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려고 하자,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들이 오히려 “그러면 건강한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는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으며, 회사 일만 아니라면 억만장자들의 압력단체를 만들려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논리도 기본 생각은 같지만 다양합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세를 없애면 그 부족한 자원만큼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걷어야 한다”는 것. 또 사회복지나 의료보험을 축소하고, 환경개선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큼니다.

워렌 버핏은 “나는 죽으면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상류층의 이런 정신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오늘의 위치에 있게 한 저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의 기부문화는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자선 기부액이 380억달러나 되며 미국인의 98%가 매년 어떤 형태로

든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대학은 기부자의 이름을 학교 건물 명에 명시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국민 1인당 기부 액수가 연평균 120 파운드(24만원)로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매달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 이 발표한 한국의 기부지수는 지난해 1인당 평균 28만9백20원, 이 중에서 종교 목적을 제외하면 연간 9만8천6백6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부 이유도 동정심과 종교적 신념이 주이며, 사회 환원이나 사회 개선,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은 이보다 약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돈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누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선 사업과 공헌 사업에 항상 많은 기부를 하기로 유명한데, 기부를 할 때는 꼭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손으로 돈을 기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 돈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greed)과 링크될 때 비로소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돈은 내가 소유해야 하며, 어떻게든 돈을 내가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경제적인 동물로 전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하나님의 마음인 나눠줌(giving)과 링크가 되면 참으로 건설적으로 쓰여 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일궈낸 부(富)를 사회를 위해 쓰는 미국의 청교도적 금전 사상은 오늘날의 부강한 미국,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비교적 많이 배려하는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가정과 단체와 교회와 기업과 국가의 리더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험적, 이론적 돈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잘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리더는 언젠가는 반드시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상류층 이상 가정들이 모두 소년소녀 가장 한 명씩만을 입양하여 매달 조금씩 원조해 준다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의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주위 이웃들의 힘든 사정을 위해 공헌의 손길을 베푼다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 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을 돕는 일을 위한 특별 통장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정성껏 모은 돈으로 이웃을 위해 베풀게 한다면 그들은 커서도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정성껏 섬겨 준다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소문이 퍼져 나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가뭄을 해결하는 소나기 같은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 자신이 40여년간 김밥을 팔고 여관을 운영해 모은 5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원을 "국제 규모의 학술회관 건립 비용과 장학금으로 써달라" 며 충남대에 기증한 `김밥 할머니` 고(故) 이복순씨 같은 분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같은 분이셔서, 낮은 곳이 있는 한 계속 내려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곳에,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축복을 의식적으로 나눠 주려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삭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